

도의회 교육위 정례회 의사일정 돌입

교육청 결산·예산 심의... "예산편성시 계상·집행에 적정 기해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가 지난 4일부터 제356회 도의회 교육위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교육위는 위원들은 6일까지 3일간 '2018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심사한다.

지난 4일 전라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건과 '전라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천방법 개정고시안' 그리고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전북학생 해양수련원 해양안전체험관 증축'은 해양안전체험교육으로 학생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체험시설에 실물모형 추가 설치 등 학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체험시설이다.

또 가칭 '전주효천초등학교' 신축

은 전주효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4.512세대의 대규모 주택개발이 이뤄져 1,198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예상돼 통학여건과 이들의 원활한 학교 배치를 위해 신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김희수(전주6) 부위원장이 발의한 「전라북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 장치를 마련했다.

5일에는 교육위 위원들이 도내 14개시·군교육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들이 수능이후 급식을 미실시해 급식일수의 감소로 불용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전주시교육청 경우, 학기중급식비 지원 예산이 400억여원인데 1차추경 4억여원, 3차추경 3천여만원, 익산시 교육청은 187억여원인데 1차추경 4억여원, 3차추경 2천여만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각각 7억여원, 3억여원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위 위원들은 "급식 미실시 일수 증가", "수능이후 급식 미실시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유에 대해 "급식예산 계상과 집행에 적정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교육관계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의 예산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을 반성과 미흡을 그리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위기의 군산 투자활성화 러시

나기학, 전북도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발의... 재정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국비 지원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75%수준으로 조정할 바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사진)이 5일,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시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의 도비 지원비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군산시 재정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제356회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도비 50%와 시군비 50%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어 GM군산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피해해진 군산지역은 지난 4월 5일, 산업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조치 중 하나로 산업부는

있다.

나기학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자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군산시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 계기를 만들고, 그동안 재정부담을 호소해왔던 군산시에라도 다소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기업유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진성 기자

문의장-5당 대표 첫 회동 키워드 '협치' 한목소리

모임 이름 '초월회' 결정 판문점 문제는 결론 못내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5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선거제도 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을 위해 '협치'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화상 국회의장 주최 정당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정외당 이정미(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화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 의장이 주재한 이날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정당대회를 마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오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을 참 좋아하고 즐겨 쓴다"며 "춧발 혁명과 한반도 평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야 5당 회동)을 정례화하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많은 얘기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많고, 내년도 예산안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심의를 앞서 5당 대표가 모여 협치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의장이 많

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당대표 간에 대화가 많이 없었다"며 "오늘이 첫 모임인데 이게 정례화돼서 선거법 개정이나 개혁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병준 한국당 위원장은 "현안이 대단히 많고 사회 변화도 급속히 진행되다보니 이견도 많은 것 같다"면서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국가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의장이 개혁과 선거법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대단히 반갑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모든 것이 청와대에 의해

단독으로 이뤄져선 정책이 제대로 조율될 수 없다. 국회를 통해 국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하다. 올라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내려갈 때 더 잘 보이기 때문"이라며 "올라갈 때 못 봤던 것들을 잘 헤아려서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사실 이번 정기국회가 저로서는 너무나 절박하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민심 그대로를 담은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만큼은 어느 때보다 합심해 문제를 풀어야 할 조건

이 무르익었다"며 "문 의장의 의지가 강하고, 모든 대표들도 이번에는 이뤄져야 한다"고 다짐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끌고 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은 매일 첫째 주 월요일에 오찬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하고,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 이들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념과 각 당을 초월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과 5당 대표들은 또 다양한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의 경우 각 당 대표들 간 의견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시스

홍영표 "美 관세폭탄 우려 견어내야"

한미 FTA 개정 계기로 여야 초당적 협력 당부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오는 2021년 1월 1일 철폐 예정이던 화물자동차 관세를 20년 더 유지기로 했다. 한국 내 수

홍영표(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부가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문안과 관련 "이번 개정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관세폭탄 우려를 견어내야 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안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무역확장법 232 조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 미국 자동차의 경우 기존 2만5000대에서 두 배로 확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나프타(NAFTA)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부품 비중을 35% 그대로 유지하는 등 성과도 많다"고 평가했다.

/뉴스시스

도의회 문건위,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한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준)는 5일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 결단식이 열리는 익산종합운동장에 방문해 현장 점검 및 추진상황을 파악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문건위원들은 올해 상반기 보수한 익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육상트랙, 관람석, 전광판 및 귀빈실 등을 현장 합의를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록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은 물론,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이 경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체육회 관계자들과 임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47종목 3만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26종목 8,5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